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677>

JCCT 2023-11-79

초등학교 1-4학년의 학교적응 변화유형

Children's Trajectorie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in Grades 1 through 4

허은하*, 김상림**

En Ha Her*, Sang Lim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1-4학년의 학교적응 변화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주요 결과로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선형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고,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4개의 잠재계층 집단(고수준-유지, 저수준-유지, 저수준-증가, 고수준-감소)을 변화계적으로 도출했다. 대부분이 고수준-유지 집단에 포함된 반면, 일부 아동이 저수준-유지, 저수준-증가, 고수준-감소의 순으로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초등학교 학교적응이 학년 상승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가진다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와 가정에서 개별 아동의 학교적응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 학교적응, 초등학생, 변화계적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stimate the trajectorie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in grades 1 through 4. For the purpose, the Korean Children's Panel data were analyzed using potential growth model and the growth mixture model. As the result, the linear model was selected as the optimal model. The four potential groups were derived as trajectories: high-level maintenance, low-level maintenance, low-level increase, and high-level decrease. In terms of group distribution, the most children were in high-level maintenance group and then low-level maintenance, low-level increase, and high-level decrease in order. Based on the findings that trajectorie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changes as children growth, we suggest that schools and families need to carefully investigate and support their school adjustment in individual levels.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 Trajectory Estimation

1. 서론

적응(adjustment)은 일상생활의 요구나 문제에 잘 대처하고 관리하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하며, 이를 학교

라는 환경에 적용한 개념이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이다[1]. 학교적응은 학교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학교라는 환경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2]. 생애적 관점에서 아동은 초·중·등 학

*정회원, 인천대학교 대학원 유아·숲·자연교육학과 박사졸업 (제1저자)

**정회원,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2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 허은하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논문임.

접수일: 2023년 10월 2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Corresponding Author: slkim@inu.ac.k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교로의 진학과 함께 학교적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적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아교육기관과 비교 시 초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규범과 학업 수행 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적응은 전반적인 학교생활 성공 여부 및 바람직한 사회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초등학교에의 적응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및 성인기 이후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된다[3-5].

아동의 초등학교적응 수준을 고찰함에 있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특정 학년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학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수 연구가 초등학교 1학년을 연구대상으로 고찰했으며[6-7], 일부 연구는 2학년 [8-9], 3학년[10], 4학년[11]을 연구대상으로 고찰했다.

한편,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은 학년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년 증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을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의 학교적응을 추적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적응 수준은 1-3학년[12], 1-4학년[13], 2-4학년[14] 동안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15] 및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16]의 학교적응이 학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한 연구[17]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 수준은 학년 증가에 따라 높아지나, 고학년으로 접어드는 4학년 이후에는 점차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저학년과 고학을 분리하여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 도구를 사용하여 학교적응을 측정한 한국아동패널의 초등학교 1-4학년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적응의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잠재성장모형은 다수 시점에서의 학교적응 수준이 일정하게 동일한 추이로 변화함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아동이 적응에 있어서 어떠한 궤적으로 서로 다르게 변화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한계점을 가진다[18].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통계방법이 성장혼합

모형(GMM: Growth Mixture Model)을 사용한 분석이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장혼합모형을 사용하여 변화궤적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국한된다. 결과를 살펴보면, 허은하와 김상림[12] 및 전현희, 김성화 그리고 홍세희[19]는 한국아동패널의 초등학교 1-3학년 자료를 분석하여 학교적응 변화궤적으로 4개 유형(고수준, 감소, 증가, 저수준)을 제안했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하여 학교적응 변화궤적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는 집단의 개수 및 유형이 다소 상이하게 제안되었다. 즉,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4-6학년의 학교적응궤적을 연구한 염동문과 이재경[20]의 연구에서는 증가와 감소의 2개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의 학교적응궤적을 분석한 남지영과 김재철[21]의 연구에서는 5개의 집단(점진적 적응감소군, 점진적 적응증가군, 고적응 유지군, 저적응 유지군, 점진적 미세 감소군)이 나타났다. 이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1-4학년의 학교적응을 고찰함에 있어 성장혼합모형을 사용한 변화궤적 분석이 요구됨을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로의 이행에 따른 학교적응에 대한 학문적 고찰은 1학년 시기뿐 아니라 4학년까지의 학년 증가에 따른 종단적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다시점의 변화 뿐 만 아니라 성장혼합모형을 사용한 종단적 변화궤적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을 잠재성장모형(LGM)과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하여 종단적 변화궤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4월-7월에 출생한 신생아가구 중 표집된 2,150명의 신생아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국의 신생아가구를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서울, 경인, 충청/강원, 경북, 경남 및 전라의 6개권역층으로 나눈 후 구축한 표본으로, 아동의 출생에서부터 성인초기인 20세까지의 장기간 발달과 양육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가 매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22]. 한국아동패널 자료는 다년간의 종단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하다. 또한,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용이하며, 표본 사이즈가 크므로 통계

적 검증력을 최대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목적
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초등학교 1-4학년 학교적응 변화케적의 유형
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 자료
중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8차년도(2015년)
자료부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11차년도(2018년) 자
료를 사용했다[23]. 한국아동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전국의 신생아 가구이며, 1차년도
데이터의 대상은 2008년에 출생한 2,078명이다. 아동의
평균 월령은 8차년도(2015년)에서 11차년도(2018년) 각
각 87개월, 99개월, 112개월, 124개월이다. 한국아동패
널 8차년도(2015년)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대상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 $n = 524(50.9\%)$, 여아 $n = 505(49.1\%)$ 로 유사하다.

2. 연구 도구

연구대상의 학교적응 측정을 위해 지성애와 정대현
[2]이 개발한 학교적응척도가 사용되었다[23]. 본 척도
는 총 35문항, 4가지 하위요인('학교생활적응', '학업수
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으로 구성된다. 각 하위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11문항)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보다 심해진 질서 및 규칙에 대한 적응,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정해
진 일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한 적응
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가 있다. '학업수행적응'(11
문항)은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듬별 활동, 적극적인 자세 그리고 과제나 준
비물의 준비를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의 예로는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가 있
다. '또래적응'(8문항)은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 해결의 형태,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의미
하며, 문항의 예로는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
법으로 해결한다"가 있다. '교사적응'(5문항)은 선생
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고,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
기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

항의 예로는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한
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연구대상 아동의 담임교사
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
교적응의 문항신뢰도 Cronbach's α 는 8차년도 .97, 9차
년도 .97, 10차년도 전체 .97, 11차년도 .9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연구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1.0 및 Mplus 7.4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분석방법에는
연구대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통계와 측정도구
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Cronbach's α 산출 및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 분석이 포
함된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을 기술하면 첫
째,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1-4학년의 4
시점 자료를 대상으로 무변화모형, 선형변화모형, 다차
함수변화모형(이차변화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
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했다. 적합도 지수 판단 시
준거로는 TLI 와 CFI .90 이상, $RMSEA$.05 이하를 사
용했다. 둘째, 전체 집단 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
는 하위 잠재계층성장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성장혼합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장혼합모형 분석 시, 학교
적응 변화케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통계적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적합도의 근거
로 정보준거지수인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
(Sample-size Adjusted BIC), 계층 분류의 질을 평가
하는 Entropy 지수, 경쟁모형과 적합의 통계검증을 나
타내는 LMR (Lo-Mendell-Rubin), $BLRT$ (LRT
Bootstrap) 검증 등을 사용했다. AIC , BIC , $SABIC$ 값
은 낮을수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며, Entropy
지수는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
른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값이 증가
하는 0-1의 값을 가지는데 대략 0.8 이상일 경우 좋은
분류로 간주한다[24]. LMR 의 경우 이전 모형(집단 수
 $k-1$ 개)과 현재모형(집단 수 k 개)을 비교하여 p 값을 제
시하므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 모형이 현재 모형
의 적합도보다 더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25]. 셋째, 최
종 분류된 각각의 학교적응 잠재계층에 하위요인 유형
별로 사례수와 비율을 제시하고 집단별 특성을 그림으

로 제시했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학교적응의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차(1학년) $M = 3.96(SD = .71)$, 9차(2학년) $M = 3.97(SD = .70)$, 10차(3학년) $M = 4.10(SD = .70)$, 11차(4학년) $M = 4.12(SD = .69)$ 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적응 수준은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변인의 왜도(-1.17 ~ -.65)는 절대 값 3미만, 첨도(-.11 ~ 1.69)는 10미만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에 필요한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1. 학교적응의 성장모형 추정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2차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선형모형이 무변화모형과 2차형모형보다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에서와 같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χ^2 보다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증분적합지수 TLI , CFI 와 절대적합지수 $RMSEA$ 지수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평가한 결과, 선형모형의 $CFI = .97$, $TLI = .94$, $RMSEA = .05$ 가 무변화모형과 2차형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형모형의 초기치 예측평균(3.94, $p < .001$)과 선형변화율의 예측평균(.06, $p < .001$)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1-4학년의 학교적응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기술통계의 추이와도 일치한다. 선형모형의 초기치 분산(.24, $p < .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학교적응 변화곡선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학교적응 잠재성장모형 분석
Table 1. Analysis of Potential Growth Model for School Adaptation

모형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2차형 모형
평균 성장	초기치	4.01***	3.94***	3.95***
	선형변화율		.06***	.02
	2차변화율			.02
분산 및 공분산	초기치	.21***	.24***	.30***
	선형변화율		.01	-.08
	2차변화율			-.01
	초기치 ↔		-.02	-.08

	선형변화율			
	선형변화율 ↔ 2차변화율			-.01
	초기치 ↔ 2차변화율			.01
모형 적합도	$\chi^2 (df)$	64.86 (8)	18.48 (5)	6.73 (1)
	CFI	.89	.97	.99
	TLI	.85	.94	.88
	$RMSEA$.07	.05	.07

*** $p < .001$

2. 학교적응의 잠재계층 수 결정

아동의 학교적응 변화곡적으로 분석된 선형모형을 바탕으로, 전체 집단 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 하위 잠재성장계층을 추정하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이 때,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수가 너무 많아 발생하는 추정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26], 각 잠재프로파일의 성장요인의 분산을 0으로 고정하는 분산 동일화 제약 후,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정보지수 AIC , BIC , $SABIC$ 값과 모형비교검증인 LMR , LRT , $BLRT$ 의 유의확률,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Entropy 값을 확인했다. 아동의 학교적응의 변화곡적으로 따른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2계층부터 5계층까지 계층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며 모형을 비교했으며, 통계적 적합성과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했다. 그 결과, 정보준거지수인 AIC , BIC 와 $SABIC$ 값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늘려갈수록 감소했으며, 제시된 네 가지 모형 모두 비교적 좋은 분류율과 유의한 LMR 검증 결과를 보였으나,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용에 있어서는 2-5계층 모형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산출된 집단 수에 근거한 해석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4계층 모형을 최종 선정했다.

3. 학교적응 잠재계층의 특성

성장혼합모형 분석에 의해 분류된 4개 잠재계층 집단의 학년 증가에 따른 학교적응 수준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 및 그림 1과 같다. 표 2와 그림 1에서와 같이 잠재계층 1($n = 1,038$, 78%)은 전반적으로 높은 학교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고수준-유지' 집단으로 명명되었고, 잠재계층 2($n = 148$, 11%)는 전반적으로 낮은 학교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저수준-유지'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잠재계층 3($n =$

132, 10%)은 학교적응 수준이 낮았다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수준-증가’ 집단으로 명명됐으며, 잠재계층 4($n = 9, 1\%$)는 학교적응이 높은 수준이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고수준-감소’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표 2. 학교적응 잠재계층 분석
 Table 2. Estimates for Trajectory Classes of School Adjustment

계층	집단명	n (%)	초기치		변화율	
			M	SE	M	SE
1	고수준-유지	1,038 (78)	4.21***	.03	.05**	.02
2	저수준-유지	148 (11%)	3.25***	.16	-.06	.05
3	저수준-증가	132 (10%)	3.10***	.11	.35***	.05
4	고수준-감소	98 (1%)	4.70***	.23	-.93***	.1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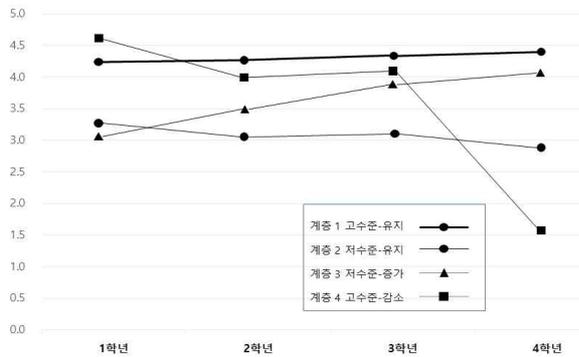


그림 1. 학교적응 잠재계층의 형태
 Figure 1. The form of the potential class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school adjustment

IV. 논의 및 제언

연구문제를 통해 초등학교 1-4학년 학교적응 변화 궤적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한국아동패널의 종단 자료를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년 증가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궤적은 네 개의 잠재계층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아동이 ‘고수준-유지’ 집단에 포함되었으며, 이어서 ‘저수준-유지’, ‘저수준-증가’, ‘고수준-감소’ 집단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약 78%('고수준-유지' 집단)가 높은 학교적응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이 초등학교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허은하와 김상림 [12], 전현희와 동료들[18], 김수정과 박금주[27] 그리고 이에진과 전은옥[28]의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둘째, 약 1%('고수준-감소' 집단)의 아동은 1학년 시점에서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년 증가에 따라 적응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학년에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으로 급감했다. 비록 1%의 소수에 해당하나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중간 이상의 무난한 학교적응을 보이는 아동이라도 학년이 증가하고 고학년이 되면서 학교적응 수준이 매우 낮아질 수 있음을 밝혔다.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고학년에 진학하면서 학교적응 수준이 급감하는 집단에 대하여는 학습 수준의 증가와 고학년에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되는 자기주도적 노력 및 현실에 대한 엄격한 자기 평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추후 해당 그룹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거나 맥락적 관련 요인을 추가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약 20%가 1학년 때 저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이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10%('저수준-증가' 집단)는 점차 증가하여 높은 수준으로 변화한 반면, 약 11%('저수준-유지' 집단)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학교적응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초기에 낮은 수준을 보이는 아동일지라도 학년 증가에 따라 상이한 변화궤적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는 저학년에서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이유에 대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아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학교적응 점수는 담임교사의 설문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선호도 등에 의해 편향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

구를 통해 아동의 직접 응답이나 학교 기록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의 4개 학년 자료를 사용했다. 일부 연구에서 고학년과 중학교 적응의 변화양상이 달라짐을 보고한 바 있으므로, 추후 초등학교 5학년 이후 시점을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중단연구로 확대하여 변화계적을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네 개 집단의 차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학교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에 서 4학년 동안 변화하는 궤적의 유형을 잠재성장모형과 성장혼합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선형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선택하고,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4개의 잠재계층 집단을 변화계적으로 도출했다. 4개의 잠재계층은 고수준-유지, 저수준-유지, 저수준-증가, 고수준-감소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고수준-유지 집단에 포함된 반면, 일부 아동이 저수준-유지, 저수준-증가, 고수준-감소의 순으로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초등학교 학교적응이 학년 상승에 따라 상이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와 가정에서 개별 아동의 학교적응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W. Weiten, "Psychology Applied to Modern Life: Adjustment in the 21st Century (9th Ed.)," Australia: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09.
- [2] S. A. Chi, and D. H. Jung,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Inventory for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27, No. 1, pp. 1-15, 2020.
- [3] D. H. Jung, and S. A. Chi,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Child-Teacher Relationships, Multiple Intelligences,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JCS)*, Vol. 26, No. 3, pp. 201-221, 2006.
- [4] A. G. Danielsen, O. Samdal, J. Hetland, and B. Wold, "School 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JER)*, Vol. 102, No. 4, pp. 303-318, 2009. DOI: 10.3200/JOER.102.4.303-320
- [5] M. E. Woolley, and A. Grogan-Kaylor,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FR)*, Vol. 55, No. 1, pp. 93-104, 2006.
- [6] E. K. Goh, and H. J. Jeon, "Investigating Predictors of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in Korean Elementary School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41, No. 4, pp. 75-90, 2020. DOI: 10.5723/kjcs.2020.41.4.75
- [7] M. R. Kim, Y. J. Lee, and E. H.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iveness of Teachers in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and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20, No. 7, pp. 613-630, 2020. DOI: 10.22251/jlcci.2020.20.7.613
- [8] E. M. Yeon, and H.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in and Strain of Parents' Work-Family Reconciliation, Parenting Efficacy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19, No. 6, pp. 261-285, 2019. DOI: 10.22251/jlcci.2019.19.6.261
- [9] H. J. Lee, and S.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arenting and School Adjustment for Elementary Stud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JEE)*, Vol. 34, No. 1, pp. 221-243, 2021. DOI: 10.5718/kcep.2021.15.2.75
- [10] K. N.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Media Device Addiction, School Adjustment and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21, No. 4, pp. 925-949, 2021. DOI: 10.22251/jlcci.2021.21.4.925
- [11] K. M. Kim, "The Effects of Permissive Parental Behavior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KJCCEP)*, Vol. 15, No. 2, pp. 75-96, 2021. DOI: 110.5718/kcep.2021.15.2.75

- [12] E. H. Her, and S. L. Kim, “A Longitudinal Study on the Trajectories and Influencing Factors of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Applying Growth Mixture Model and Latent Class Analysi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42, No. 1, pp. 45–60, 2021. DOI: 10.5723/kjcs.2021.42.1.45
- [13] H. S. Kim, and M. H. Park, “Peer Play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Predicting the Parallel Latent Growth Modeling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at School-Ag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JECE)*, Vol. 41, No. 4, pp. 55–74, 2021. DOI: 10.18023/kjece.2021.41.4.003
- [14] H. K. Cha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Happines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HSS21)*, Vol. 12, No. 5, pp. 219–239, 2021. DOI: 10.22143/HSS21.12.5.114
- [15] J. M. Lee, S. J. Kang, K. Y. Lee, and S. Y. Lee, “The Effects of Parenting Practice on the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School Adjustment of Upper Elementar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KJCS)*, Vol. 36, No. 4, pp. 91–110, 2015. DOI: 10.5723/KJCS.2015.36.4.91
- [16] H. J. Lee, and Y. J. Cho, “The Exploratory Study of Longitudinal Changes and Variables Predicting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KJYS)*, Vol. 17, No. 2, pp. 253–278, 2010.
- [17] E. S. Lee, S. Y. Lee, and S. H. Hong, “The Effects of Community Child-Center Service on School Adjustment Change Trajectory: Using Second-Order Latent Growth Mode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SWRY)*, Vol. 50, pp. 59–85, 2016. DOI: 10.17997/SWRY.50.1.3
- [18] D. Hedeker, “An Introduction to Growth Modeling,” in D. Kapla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215–234,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4.
- [19] H. H. Jeon, S. H. Kim, and S. H. Hong, “Trajectories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Their Determinants: Using Growth Mixture Models,” *Survey Research (SR)*, Vol. 21, No. 3, pp. 113–140, 2020. DOI: 10.20997/SR.21.3.5
- [20] D. M. Yeum, and J. K. Lee,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tterns of Change and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Using the Community Children’s Center,” *Forum For Youth Culture (FFYC)*, Vol. 60, pp. 29–55, 2019. DOI: 10.17854/ffyc.2019.10.60.29
- [21] J. Y. Nam, and J. C.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Absence of Parents After School and Latent Class of School Adjustment Chan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KJYS)*, Vol. 24, No. 6, pp. 281–306, 2017. DOI: 10.21509/KJYS.2017.06.24.6.281
- [22] E. S. Kim, E. J. Bae, S. I. Cho, Y. J. Lee, S. Y. Song, J. B. Im, E. Y. Park, S. K. Kim, and E. J. Kim, “Longitudinal Study of Korean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outh Korea, 2016.
- [23]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and Codebook,” <http://panel.kicce.re.kr>.
- [24] B. Muthén, “Latent Variable Analysis,” in D. Kaplan (Eds.),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2004.
- [25] Y. Lo, N. R. Mendell, and D. B. Rubin,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Vol. 88, No 3, pp. 767–778, 2001. DOI: 10.1093/biomet/88.3.767
- [26] L. K. Muthén, and B. O. Muthén, “Mplus User’s Guide (8th Ed.),”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2017.
- [27] S. C. Kim, and K. J. Kwak, “The Investigation on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in the First Grade: Short-term and Longitudinal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KJDP)*, Vol. 23, No 2, pp. 19–37, 2010.
- [28] Y. J. Yi, and E. O. Jun,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in First Grade Elementary Students: Focused on Mother’s Employment,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KJCCEP)*, Vol. 13, No 1, pp. 101–121, 2019. DOI: 10.5718/kcep.2019.13.1.101